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마쓰시로가 주택 7동

마쓰시로가 주택은 에도 시대 후기로부터 회선업으로 재물을 모은 마쓰시로 가문의 주택으로서 1873년에 상량되었다. 처음에는 주옥, 회계방, 서장고, 동토장(동쪽 창고), 북토장(북쪽 창고), 서토장(서쪽 창고), 간장창고가 건축되었지만, 서토장(서쪽 창고)은 해체되고 간장창고는 이축되었다.

부지를 둘러싼 돌기둥으로 된 문과 돌로 쌓은 담, 정원문도 건축물과 동시기에 정비된 것으로 보이며, 부지내에 현존하는 건조물군과 함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건물주옥의 1층은 일본식 건축양식이며, 2층은 전통 공법으로 서양건축을 모방하여 만들었기에, 의양풍 건축의 특징을 엿볼수 있다.

서장고, 동토장(동쪽 창고), 북토장(북쪽 창고)은 전통적인 토장구조이지만, 동토장(동쪽 창고)은 지붕이 회반죽, 해삼벽까지 검은 회반죽으로 되어 있어 의장이 격식있게 정비되어 있다.

마쓰시로가 주택은 메이지초기의 의양식 건축으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이른 시기의 유구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요문화재(건조물)의 지정내용】

명칭: 마쓰시로가 주택 7동

(주옥, 회계방, 서장고,

동토장<동쪽 창고>, 북토장<북쪽 창고>,

문기둥 및 담, 정원문 및 담)

지정연월일: 2006년 7월 5일

(관보고시 건 제2485호)

소재지: 시즈오카현 누마즈시 헤다 72번지

